**교제와 나눔**

**\*\*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ㆍ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ㆍ새가족 환영:** 김병원, 우가음, 이지선, 조수빈

**ㆍ예결산제직회:** 오늘 예배 및 오찬 후 Teestube

**ㆍ예결산공동의회:** 다음 주일 예배 후 본당

**ㆍBible12(성경개관) 4강:** 다음주일 공동의회 후 Teestube

**ㆍ나라주일:** 12월 15일 주일

**ㆍ성탄절 예배:** 12월 25일 12시

**ㆍ송년주일 및 은퇴식:** 12월 29일 주일

**ㆍ송구영신 새벽기도회:** 12월 30일(월)~1월 4일(토)

**ㆍ각 부서와 기관들은 내년도 조직 및 사업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생일:** 김평님

**ㆍ부임:** 이영환 전도사(유초등부 전담 및 청년Aa 담당)

**◆말씀일기 일정**

일/계7:1-17 월/계8:1-13 화/계9:1-12 수/계9:13-21

목/계10:1-11 금/계11:1-13 토/계11:14-19 일/계12:1-17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67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12월 1일** | **12월 8일** | **12월 15일** | **12월 22일** |
| **예배기도** | 우선화 | 박요셉 | 신일수 | 서민규 |
| **말씀일기** | 정규선 | 손재호 | 민경웅 | 오경민 |
| **안내위원** | 신형만, 예배부 |
| **헌금위원** | 양귀남, 한정우 |
| **애찬봉사** | 밥상 일곱 | 밥상 하나 | 나라주일 | 밥상 둘 |

**36-49호 2019년 12월 1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14:27)

주일예배: 12:00 Fliedner Saal

유초등부예배: 12:00 Teestube

청소년부예배: 12:00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63-139 2225

**교육/ 이영환 전도사** HP. 0163-143 2804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1. Advent)**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배부름/Eingangsgebet …………………………………………………………………… | 다함께인도자 |
| ※찬송/Gemeindelied …………………………… 22장 ………………….……………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115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98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말씀일기/Bibeltagebuch …………………………………………….............................찬양/Chor ………………………………………………………………………………………… | 우선화 권사정규선 집사찬 양 대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요한6:1-15 …..…....………………… | 인 도 자 |
| .설교/Predigt …………………………… **언덕 위의 잔치** …..……………........ | 손교훈 목사 |
| 찬송/Gemeindelied ……………………….…… 198장 ………………….…….……합심기도/Gebet ……........……………………………………………….......................봉헌/Kollekte ……………………………………………………………………………… | 다 함 께다 함 께다 함 께 |
| 교제/Bekanntmachung …….....................................................…………...............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  |  |

**※는 함께 일어섭니다.**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계6장 '심판은...' ◀**

심판은 있다.
어린 양이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 비밀이 밝혀지고 점점 더 분명해진다.
흰말-면류관, 붉은 말-큰 칼, 검은 말-저울, 청황색 말-사망(1-8).

심판은 한편 절망이지만, 다른 한편 절대 희망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요 사랑이다. 죽었다고 끝이 아니다. 말씀 때문에 죽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자신들의 피의 원수를 갚아주실 때가 언제냐며 호소하고 있다. 어린 양은 그들처럼 의로운 죽음을 당한 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신다(9-11).

심판은 그러므로, 피하려고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심판은 없다고 덮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두루마리 말리듯 하늘이 떠나가고,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12-14).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게 되면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15-17).

심판은 어떻게 맞느냐,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가 중요하다.

가장 완벽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고 맞을 것인가, 아니면 덮고 무시하고 미루기만 하다가 절망과 공포 속에 끌려갈 것인가?

언젠가 보았던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

집을 떠난 나그네로 고향 집을 향해 가는 우리네 인생 여정에 어울리는 영화라서 좋았고, 진짜 배우 전도연을 다시 또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무엇보다, 공정한 판결없이 온전한 회복-'집으로 가는 길'은 없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이 땅에는 여전히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

공정한 심판만이 그 눈물을 닦아 주고, 떠도는 영혼들을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소중한 하늘 집이 있음을 알고 그 집으로 가게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히11:16)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요, 가슴 뜨거운 사랑이다.